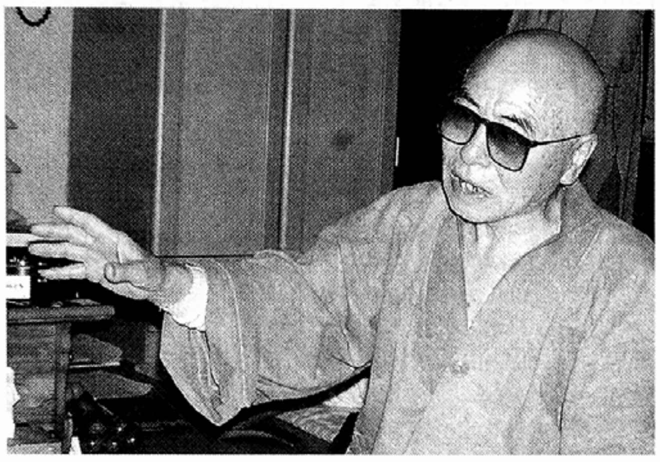
“형상에 매달리면 끝내 미혹 남의 살림살이에 속지 말라”



면 나에게 좋은 말이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요즘에는 수도할 그릇이 될만한 사람이 귀합니다. 전부 문자와 명예, 물질, 형식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마쳐요.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에 선수행을 하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경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허공을 느꼈어요. 허공이 내 살림이다. 내가 허공이고 허공이 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 부처님을 따른 보람이지요. 허공이 부서져 버렸어요.

꿈 속의 인간이 되어선 안됩니다. 구족하게 태어나서 사유할 줄 안다는 것은 선근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른다면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쌀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 밥상에 올랐는지 알고는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를 깨치면, 지금 하는 일, 앞으로 할 일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는 문제, 가는 문제 다 풀려버립니다.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물은 물, 산은 산, 바람은 바람대로 부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산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바탕은 부처님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수행이 쉬운 과정이 아니니 수행의 문에 들어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떻게 넘어서야 합니까? 스승의 점검과 가르침이 없어서도 안되는 줄 압니다.

▲많은 선방이 있지만 점검을 해주지 않으면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깨닫기 전에는 미궁에서 헤맵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라고 했어요. 자기가 싸워서 결론을 봐라 이겁니다. 화두를 들다 어떤 감각이 나오면 점검을 받아야지요. 과거 임제스님이 황벽스님을 세 번이나 찾아가 얻어맞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두를 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불, 주력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편을 많이 베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을 수는 없고 선근을 심는 것이니 공덕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조사선에서 보면 얘기할 거리가 되지 못하니까 문제시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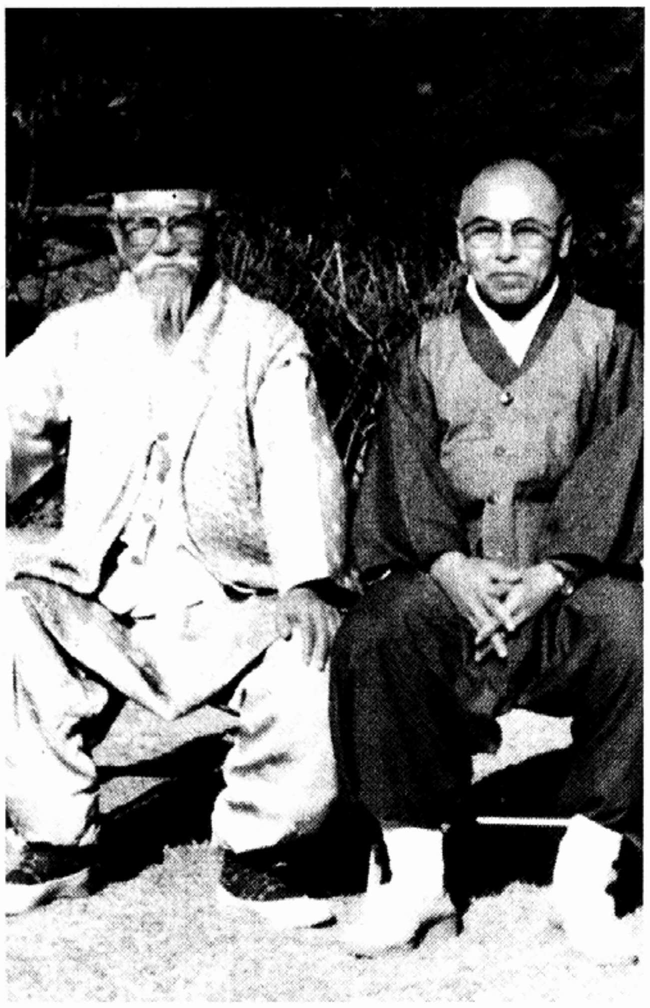
—근기에 따라 화두도 들고 교학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화두 드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요.

▲조사선은 절차법이 없는 도리입니다. 단계가 없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자리입니다. 단계가 있는 것은 조사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수스님이 떨어진 겁니다.

—책을 보는 것은 어떤 단계입니까?

▲원리를 알아야 하니 책을 보는 것은 필요해요. 경전과 어록을 보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못한 단계예요. 완전히 깨달았다는 느낌이 철저하다면 서적이 필요없어요. 전부 내 살림으로 해야 하니까요. 분명해버리면 산산수수(山山水水)가 모두 팔만대장경입니다. 소동파가 읊었듯 시냇물 소리와 산빛이 어찌 청정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가 전부 내 살림이 되어버리니까 춘하추동, 과거 현재 미래, 지옥 천당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놓은 것을 엿보고 눈치볼 것 없어요. 불교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여기 텔레비전을 보고 거울을 보아도 전부 나입니다. 이것이 전부 공한 자리입니다. 거울에 내가 비췄다가도 지나가면 없어져요. 몸뚱이도 비워지는 것입니다. 잠 잘 때도 자꾸 흐르고 있어요. 찰나찰나 없어지는 것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이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오온(五蘊)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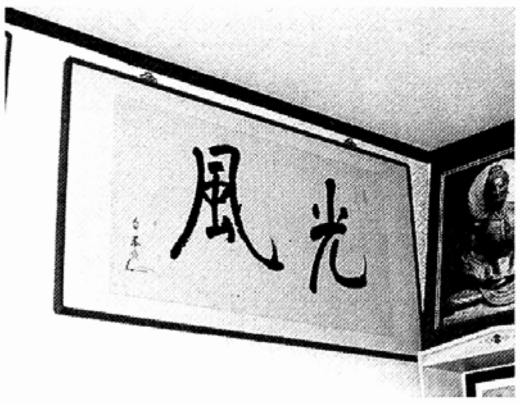
◇30여년 전 백봉 김기추거사가 부산 남천동에 머물며 법을 설하던 때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 오른쪽이 묵산스님.

—일상생활을 하며 화두를 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간화선을 한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붙들고 늘어지는데 느낌이 올 때까지 애써야 합니다. 최소한 느껴야 합니다. 일할 때는 일을 충실히 하고, 운전할 때는 앞차 뒤차 잘 살펴야지요. 거기서 화두든다고 하면 안됩니다. 일과를 정해서 편안한 장소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보고 듣는가’, 이렇게 궁리를 하다보면 느낌이 옵니다. 그 때가 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화두가 됩니다. 그전에는 서툴게 화두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를 믿어도 내가 믿고, 내가 부처라고 하는 뿌리가 단단해야 공부가 되고 신심이 나고 효과가 납니다. 내 부처를 찾고, 내 관세음보살을 찾아야지요. 금강경도 내 금강경, 내 반야심경, 내 천수경을 찾아야지요. 자신이 금강경이고 법화경이다. 이걸 거머잡아야 합니다. 자기 살림살이는 내팽개쳐 놓고 남의 살림살이에 다 속아 넘어가요. 봉사가 지팡이 짚고 가는 꼴입니다. 그래야 허실이 판단됩니다. 돌부처에게 절하고, 적멸보궁 찾아다니는 식으로 하면 백만년을 해도 끝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부처를 놓고 형상에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백봉거사가 쓴 ‘광풍’이란 글씨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묵산스님은 이 글씨를 가리켜 “삼천대천세계를 다 말아먹는 소리”라고 말했다.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①

철마다 바꿔 거는 족자 스님의 인품 보는 듯

정좌처 다반향초(静坐處 茶半香初)
묘용시 수류화개(妙用時 水流花開)
고요한 좌선실에 차 맛은 반잔의 맛, 향기는 첫 향기
묘용을 쓰는 시간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나니.

송광사 불일암(佛日庵) 다실 벽에 걸린 족자의 한 구절이다. 붓 대롱이 닳게 꾹꾹 눌러 쓴 추사(秋史) 선생의 글씨로, 어린애 솜씨 같은 치졸한 맛이 있다. 법정스님은 철따라 족자를 바꿔 거시는데 어느 것이나 다 스님의 인품에서 풍기는 그런 아취가 느껴진다.

내가 조계산 송광사 산내 암자 불일암을 처음 참배하였을 때의 모습은 지금의 불일암 주위 모습과는 다르다. 출입하는 문과 공양간 위치가 바뀌었고 곁에 딸린 서전(西殿)을 아직 짓기 이전이었다. 광원암(廣遠庵)도 복원되기 전이었다. 25년 전인 그때는 아담하고 조촐한 작은 암자였다. 지금도 외형은 그대로인 것 같다.

찰밥을 싸들고 도반 행자들과 함께 법정(法頂) 스님께 인사차 갔다. 큰 절에서는 보름마다 하는 삭발 목욕일 날에 항상 찰밥을 한다. 송광사 찰밥 하면 또 알아준다. 그때 보현심 보살이 채공 보살로 있을 때였는데 솜씨가 아깝다 할 정도로 뛰어났다.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미역국하고 찰밥은 음식궁합으로 잘 맞아 미역국도 함께 끓인다.

국을 끓이는 소임은 내 몫이었다. 먼저 솥바닥에 기름을 바르고 물에 불린 미역을 약간 볶았다가 끓이면 담박하면서도 구수하다. 다 상(上)행자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요리법이다.

불일암 외에도 고개 넘어 오도암(悟道庵) 과수원에 간다. 그때 효봉(曉峰) 노스님의 속가 아드님 거사가 말년에 머물고 계셨다. 사진첩을 보여 주며 옛 이야기도 들려 주셨다.

불일암 스님의 은사는 효봉 노스님이신데 말하자면 서산 대사의 법맥인 셈이다. 그 이전 송광사는 서산 대사와 쌍벽을 이룬 부휴대사 선수(善修)의 후손 풍암 스님의 법손이었다. 약 400년 동안을 풍암 스님 법맥이 유지되었으니 송광사는 효봉 노스님이 주석하는 시점에서 판도가 크게 바뀐 것이다. 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은 효봉문도 일색이지만 또 언제 법력 높은 분이 새 회상을 차리게 될지 예측 불허하다. 세상사 인연 따라 오고간다.

오도암 아드님 거사로부터 전해 들은 일화가 있다. 사실 그때는 오도암이 아니고 구산(九山) 스님이 거사를 위해 과수원을 인수해 토굴로 그냥 쓰도록 하였을 뿐이니 암자랄 것도 없이 오두막 같은 토굴집이었다.

“평양 집에서는 ‘효’ 자, ‘봉’ 자 노스님이 가출한 날을 제삿날로 삼았지요. 그 날을 잡아 제상을 차려서 절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노스님은 그 날 밤 꿈에, 자식들이 걸게 음식을 차려서 놓고는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사님은 화순 경찰서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헌데도 지척에 아버지를 두고도 생전에는 뵐 기회가 다시 없었다. 신혼 여행 때에는 오대산 선원 앞을 지나쳤을 때에 효봉 노스님이 이를 알아보고 앉은자리에서 돌아앉았으니 부자간의 인연치고는 묘하다.

법정스님의 차가운 눈빛은 퍽 이지적이면서도 단호하다고나 할까.

한번은 불일암에서 공양주로 지낼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광주에 호미, 돌 망치, 돌 뜨는 대꼿, 등 연장을 사러 갔다와서 잔돈을 다 내놓지 않으니, 두 세 차례나.

“연장을 잘 샀어?”

그림·문병성

하고 넌지시 잔돈을 다 내놓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 10만원을 가져가서 6만 몇 천 몇 백 몇 십 원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끝돈은 버리고 그냥 만 원 권만 3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잔돈을 깡그리 털어놓을 수밖에.

다른 이야기지만, 담을 허술하게 해 두면 도둑질을 가르친다고, 하여 만장도교(慢牆盜教)란 치문(緇門)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다. 스님은 매사에 투철하여 빈틈이 없으신 줄을 짐작하였지만 정작 모시고 보니 수긍이 가는 이야기였다.

직설적이고 단순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다. 좋든지 궂든지 분명하지 우물쭈물 머뭇거리는 법이 없다.

스님의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스님 밥그릇 안에 내가 고기 몇 점을 넣어 두었을 때였다. 스님은 몇 술을 들다말고 밥 속에 묻힌 고깃점을 보더니,

“옛날 노처녀가 있었지. 맘에 든 신랑이 없는 탓이야. 헌데 이번에는 정작 신랑감이 나타났는데 역시 결혼을 포기하고 말았다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지켜온 정조가 아까워서 그랬지.”

“………?”

고기를 보고는 느닷없이 노처녀 이야기를 꺼내신다. 나는 스님의 깊은 속뜻을 모르고 다만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지켜온 정조 때문이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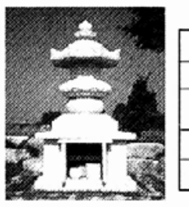
佛紀 2544年(庚辰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송 광 사
주 지 지 원
신 도 일 동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TEL 0652)243-8091 / 8681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
통도사 부산포교원
HANNARAE OUITURE INOORPORATED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TEL : 051)816-2241
FAX : 051)806-2430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족, 종중, 묘지의 혁신!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며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종중, 탑30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선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평이던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잘된다.
· 화장은 어떤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이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실용신안 등록번호	0172542호
의장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함규격(원통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65cm.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종중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사찰경내 영탑공원 영탑주문 환영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석재 가공 및 장묘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험자.
· 희망자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폐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숙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
Tel : 0417)584-6674~6 Fax:0417)584-2335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님!

4월은
잔잔한 바람
그림움 되어

하늘 끝
님 오시는 길 따라
연꽃등 밝혀들고

다시 태어나
고해의 바다건너
어린 중생 품어주시려

억겁의 세월은
온누리 자비광명
피안의 언덕으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 꼭 소장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2242-0255
(011)471-1996
E-mall : hbac.@chollian.net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